



임은혜 작 '쓸쓸한 휴식'

예술은 골목을 깨우고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5~11월 양림동 일대서 '일상을 깨우는 공간'전을 연다. 이찬주 작 '우리의 집은 없다'

골목은 전시장이 되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 양림동 일대 5~11월 '일상을 깨우는 공간' 전
건고 체험하는 몰입형예술...회화·설치·공예 등 15명 창년작가 참여

골목은 이야기와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다. 옛 시절의 추억과 이웃들의 삶이 녹아 있기도 하다. 광주의 대표 문화 지대인 '양림동 골목'은 근현대의 숨결을 오롯이 담고 있다. 골목마다 이색적인 카페와 갤러리, 맛집 등이 자리하고 있어 언제 방문해도 특유의 문화적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양림동 활기는 예전만 못하다는 말이 들려온다. 골목 구석구석 깃든 문화자원과 문화적 인지는 무궁무진하지만 골목 활성화로는 온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양림동 골목이 전시장으로 변모하는, 창의문화지대로 거듭나는 이벤트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대표 정현기)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예술이 골목을 깨우다'를 모토로 'Awakening Space: 일상을 깨우는 공간'전을 연다. 양림동 골목과 공방, 일상 공간이 현대미술의 무대로 변모되며 펍킨마을 공예거리가 예술로 다시 숨을 쉰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에 펼쳐져 외지인의 방문 견인은 물론 지역 예술 생태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기 대표는 "이번 전시는 일상의 공간이 예술이 되는 무대를 지향한다"며 "다소 침체된 공예거리가 이번 전시를 통해 '잠'에서 깨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골목이 전시장이 되는 실험'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전시 장소는 모두 5개 공간으로 구성된다. 펍킨미술

관, 펍킨마을 공예거리 11동, 15동 A, 15동 B, 양림동 청년창작소 별관 등이 그 것이다.

참여 작가는 모두 3명. 지역 작가 15명과 서울 작가 3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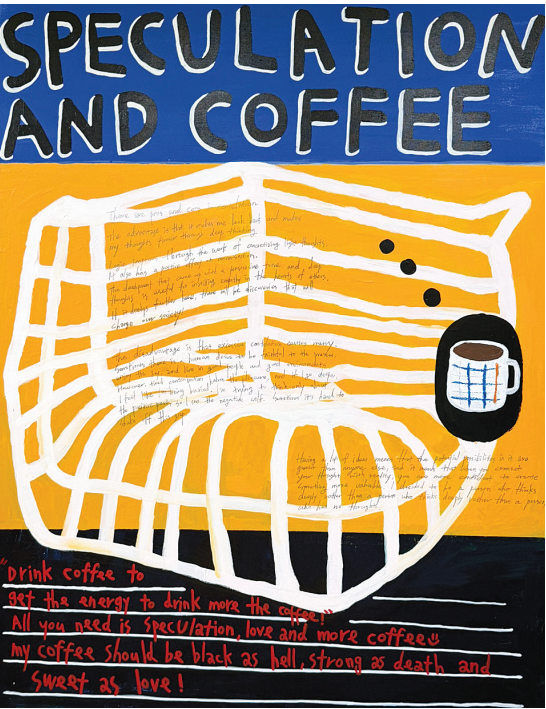
김민경, 김지희, 노은영, 박지형, 박찬진, 손지원, 위주리, 유기완, 윤상하, 이찬주, 이현승, 임은혜, 정덕용, 조도휘, 최정조는 회화, 설치, 공예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이 '삶과 예술이 연결되는 순간'을 지향하는 만큼 방문객들은 작품 감상 외에도 예술 경험도 할 수 있다. 일명 몰입형 예술 경험. 관람객이 거리를 걷고 체험하며 유유 공간과 골목길을 '열린 캔버스'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찬주 작가의 '우리의 집은 없다'는 골목과 집을 함께 사유해보는 작품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집이 없다'는 것은 '여디에도 우리 집이 있다'는 의미로 상징할 수 있다. 집이 환기하는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고 공유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형상화한 임은혜 작가의 '쓸쓸한 휴식'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집약한 작품이다.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도 즐거운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쓸쓸한 휴식'은 인간 외에도 생태 위기 속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환기한다.

이현승의 '커피와 사색'은 양림동 골목과 잘 어울리는 작품이다. 골목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을 음미하며 문화와 예술, 삶을 사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올 가을 양림동 골목을 거닐며 '커피



이현승 작 '커피와 사색'

와 고독의 시인' 김현승과 그의 시를 떠올려도 좋을 듯하다.

정 대표는 "'Awakening Space'는 전통적인 화이트큐브 전시관을 탈피해 골목과 빈집, 일상 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주민과 방문객들이 미술을 매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문제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며 펍킨마을 공예거리와 양림미술관 거리협업체가 협력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금관악기 매력 한자리에



체임버 시리즈 VI 'Fanfare' 출연진.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VI 'Fanfare' ...26일 광주예술의전당

가을밤, 황금빛 선율이 공연장을 물들인다. 금관악기의 장중함과 파스함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는 것.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체임버 시리즈 VI 'Fanfare'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금관악기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웅장함과 섬세함을 아우르는 특별한 음악 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대에는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타악기까지 총 11명의 연주자가 참여해 금관악기들의 진수를 선보인다.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일부로 주로 경험되는 금관악기를 소규모 편성으로 집중해 조형하는 만큼 각 악기의 개성과 음색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공연은 헨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로 문을 연다. 영국 왕실의 축제를 위해 작곡된 이 곡은 군악대와 불꽃놀

이의 화려함을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파파리의 힘과 미뉴에트의 우아함이 공존한다. 이어지는 넬히벨의 금관 삼중주는 트럼펫·호른·트롬본의 대화 같은 조화는 현대 금관음악의 섬세함을 보여준다.

텔레만의 '사중주 협주곡'도 이어진다. 원래 현악 편성이지만 이번 무대에서는 세 대의 트롬본과 튜바로 재구성된다. 저음 금관악기의 중후한 울림이 바로크 음악에 색다른 깊이를 더한다. 공연 후반부에는 에발트의 '금관 오중주 3번 D♭장조 op.7'가 이어진다. 20세기 금관악기들의 대표작으로 화려한 화성과 세련된 선율이 돋보인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 작곡가 고창수의 '금관 팔중주'로 장식된다. 전통적 선율과 현대적 기법이 결합된 곡으로 한국적 정서가 담긴 금관 앙상블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전석 1만 원, 광주시향 누리집·티케팅코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멀고도 가까운 아랍'

'아랍문화제' 6일 ACC 문화정보원

'멀고도 가까운 아랍'.

일반적으로 아랍에 대한 관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 있다.

아랍의 문화와 역사, 당대 사람들의 삶의 풍속들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편견 때문이기도 하다.

아랍의 문화를 다면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18회 아랍문화제'가 오는 6일(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열린다. '멀고도 가까운 아랍'을 주제로 한국과 이집트의 전통 음악과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다.

먼저 조선대 황병하 명예교수가 '컬쳐토크'에 나와 아랍 사회와 문화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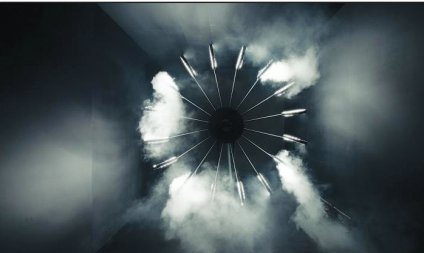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전통 무용과 소리 공연으로 문화제의 흥을 돋운다. 지난 1999년 창립된 전통연희놀이연구소는 우리의 고유 전통과 현대의 간극을 좁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왔다.

이집트 국립 포티사이드 민속예술단은 지중해 항구 도시인 포티사이드의 특유의 자연과 문화유산에서 받은 영감을 민속음악 등을 통해 풀어낸다. 1964년 창단된 포티사이드 민속예술단은 그리스, 프랑스, 몰타 등 각지를 돌며 자신들의 문화와 예술을 펼쳐오고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아랍문화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아랍문화에 대한 관점을 다양한 층위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라며 "9월을 맞아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람료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진 작가 작 '경계의 고리'

'광양-린츠 익스체인즈 그랜트'

이진·틸 쇠베터 작가 선정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GIMAF)과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AE)가 공동 주관한 '그랜트 수여 작가 선정 프로젝트' 수상자에 한국의 '이진 작가', 오스트리아의 틸 쇠베터 작가가 선정됐다. 각각 수상작은 'Liminal Ring', 'Post-Eden, generative Agents in a dynamic environment'.

GIMAF 추진위와 AE는 최근 심사회를 열어 2인의 작가를 뽑았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린츠 익스체인즈 그랜트' 프로그램은 GIMAF(총감독 방우송)과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측이 각각 8개 작품, 총 16개 작품을 엄선해 공동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 노소영 나비미술관 관장, 이경호 전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센터장, 방우송 GIMAF 총감독,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탈 바우어(AE 페스티벌 총괄), 로라 웰렌바흐(AE 글로벌 수출 담당), 다니엘러 두카 드 데이(AE 큐레이터 겸 전시 프로듀서)가 참여했다.



틸 쇠베터 작 '포스트-에덴'

이진 작가의 'Liminal Ring'은 경계성과 전환을 탐색하는 몰입형 작품이다. 디지털 세상과 현실의 경계를 깊이있게 사유,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틸 쇠베터의 'Post-Eden, generative Agents in a dynamic environment'는 생성형 에이전트를 매개로 구현한 작품이다. 인공지능과 자연 개념을 재구성해 오늘의 문제를 의미있는 시각으로 구현했다는 후문이다.

두 작가의 그랜트 수여는 오는 3일,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개막 전 개최되는 '광양-린츠 익스체인즈' 행사에서 있을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은 9월 열리는 오스트리아 린츠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본 전시에 초청돼 공개되며 10월 2025 광양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